16.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정치

孟子

맹자(孟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제후들에게 백성을 위하는 왕도 정치(王道政治)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올바른 정치의 기준을 살펴보자.

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고자(告子)'

無恒產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產이면 因無恒心이라.

새로 배울 한자

孟 맹 맏, 성씨
*侈 치 사치하다
惟 유 오직
陷 함 빠지다
苟 구 진실로
罔 망 그물
*辟 벽 임금, 편벽되다
焉 언 어찌
邪 사 간사하다

-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맹자의 사상을 이해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오?

'양혜왕(梁惠王)'



맹자(孟子) 맹가(孟軻)(B.C. 372?~B.C. 289?). 중국 전국 시대 사상가

읽고 풀이하기



주어 / 서술어 / 보어

人性之善也，猶水之就下也，

猶: ~와 같다 / 就: 나아가다

人無有不善，水無有不下.

無有: 없다

無恒產而有恒心者，惟士爲能，

恒產: 일정한 생업 / 恒心: 일정한 마음 / 爲: 가능하다

*恒產(항산)
: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업
*恒心(항심)
: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

若民則無恒產，因無恒心.

若: 만약 백성이라면 / 因: (그로) 인하여

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爲已，

苟: 진실로 / 放辟邪侈: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함. / 無不爲: 하지 않음이 없다 (이중 부정=강한 긍정) / 已: ~뿐이다.

*放辟邪侈(방벽사치)
: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함.

及陷於罪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

刑: 벌하다 / 之: 그들 / 罔: 그물질하다 (그물로 잡다)

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爲也?

焉: 어찌 / 在位: 임금의 자리 / 可爲: 할 수 있다

*焉有~也: 어찌 ~있겠는가?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제시한 최저생계비 조건

'망민(罔民)'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형벌에만 치중하는 군주의 잘못을 꼬집은 표현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백성들이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현대적 사회 복지 제도의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맞닿는다.

우리 사회 복지 제도 구상하기

생각 넓히기

맹자가 주장한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과 연관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를 구상해 보자.

교육	
노동	
의료	
장애인	

인문학 더하기

『맹자』가 한때는 금서(禁書)였다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재위 1368~1398)은 『맹자』를 읽다가 "임금이 신하를 지푸라기처럼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대목을 만나게 되었다. 이 순간 그는 갑자기 소리치며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늙은이가 지금 살아 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장 이 자의 신주를 사당에서 내치고 책을 불태워라."

주원장의 이와 같은 노여움은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 정치, 역성혁명이 기본적으로 군주보다는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와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군주가 큰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해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등을 비롯한 『맹자』의 85개 구절을 삭제하고 100여 개의 구절만 남겨 놓은 『맹자절문』이라는 책을 만든다. 이렇게 삭제된 부분은 『맹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후 『맹자』는 20여 년 후인 영락 12년(1414) 성조의 명령으로 복권되었다.

어휘력 키우기



1 '心(忄)'이 들어간 한자

恒 항 항상 _ 恒常 항상　怪 괴 기이하다 _ 怪談 괴담　悠 유 멀다 _ 悠久 유구
憫 민 불쌍히 여기다 _ 憐憫 연민　戀 련 그리워하다 _ 戀愛 연애　慰 위 위로하다 _ 慰勞 위로
忍 인 참다 _ 忍耐 인내　怠 태 게으르다 _ 怠慢 태만　慧 혜 슬기롭다 _ 智慧 지혜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土 토 흙 _ 土器 토기
士 사 선비 _ 辯護士 변호사

說 설 말씀 _ 說明 설명
設 설 베풀다 _ 設備 설비

3 음이 같은 한자_ 성

成 이루다 _ 成功 성공, 成立 성립, 成績 성적
性 성품 _ 性格 성격, 男性 남성, 性差別 성차별
姓 성씨 _ 姓名 성명, 百姓 백성, 同姓同本 동성동본
城 성 _ 山城 산성, 城壁 성벽, 都城 도성
聲 소리 _ 聲量 성량, 名聲 명성, 聲帶 성대
聖 성스럽다 _ 聖人 성인, 聖賢 성현, 聖歌 성가

4 어휘의 활용

- 북유럽의 사회 복지 정책은 租稅 부담을 높이면서 전 인구를 수혜자로 삼는다.
- 예술계에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지나친 規制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주장한다.
-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收穫量의 절반으로 매기는 것을 竝作半收라고 한다.

새로 배울 한자

怪 **괴** 기이하다　悠 **유** 멀다　憫 **민** 불쌍히 여기다　憐 **련** 불쌍하다　戀 **련** 그리워하다
歎 **탄** 한탄하다　慰 **위** 위로하다　耐 **내** 견디다　怠 **태** 게으르다　慧 **혜** 슬기롭다

확인하기



1. 글의 내용으로 보아 (　) 안에 들어갈 것은?

>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　).

① 上　② 下　③ 善　④ 惡　⑤ 猶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 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2. ㉠의 풀이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及 → 陷 → 罪 → 於 → 然後
② 陷 → 及 → 罪 → 於 → 然後
③ 陷 → 罪 → 於 → 然後 → 及
④ 罪 → 於 → 陷 → 及 → 然後
⑤ 罪 → 於 → 陷 → 然後 → 及

3. 윗글에서 '군주가 우선 힘써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①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
② 백성들에게 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
③ 상벌의 기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④ 죄를 지은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질서를 바로잡는 것
⑤ 선비와 백성의 신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역할을 주는 것

智 **지** 지혜　辯 **변** 말 잘하다　績 **적** 쌓다, 공　格 **격** 격식　差 **차** 어긋나다
租 **조** 세금　規 **규** 법　穫 **확** 거두다　竝 **병** 아우르다